

# “민간공원 2단계 충분한 검토 후 추진을”

## 광주시민사회단체·전문가 한목소리... 윤장현시장 면담 요청 재정 투입 공원 구체적인 계획·공공개발 기조 천명 등 요구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제안 공모를 4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간거버넌스 참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반발하고 있다. 개발 면적을 축소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1단계 사업의 오류에 대한 평가와 대책 수립, 시 재정 투입 계획 공표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가 민간거버넌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13일 회의가 2단계 사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김일태 전남대학교수, 노경수 광주대학교수, 조동범 전남대학교수, 조

진상 동신대학교수 등 민간거버넌스 위원 등은 12일 ‘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발표해 배포했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 21, (사)푸른길,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도 참여했다.

자료에서 이들은 “광주시가 4월 내로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 공고만을 열두한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며 “공공일몰 시점을 고려했을 때 시의 조바심은 이해할 수 있지만, 1단계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없이 공고된 제안 내용에 발목 잡혀 민간기업에게 도시공원 운영을 맡기는 한계와 폐해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했다.

또 “시가 내세웠던 공원의 최대한 보존, 민간공원 추진 시 공공성과 보편적 기능유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해 대외적 노력 등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부득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면 사업 형식과 내용에서 공원 기능과 공공성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 그 외 시 재정투입이 필요한 공원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들은 ▲2단계 민간공원은 공공개발로 추진할 것 ▲1·2단계 민간공원의 개발 강도를 저감할 것 ▲도시공원 조성 예산의 확보에 최우선의 책임은 질 것 ▲시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요청하기 위해 윤장현 광주시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야3당 “민주·한국당은 개헌안 조속 타협하라” 압박

## 민주, 개헌협의체 수용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12일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향해 조속한 개헌안 타협을 공개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6명은 이날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거대 정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계속된 대치로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중소 정당인 이들 야3당이 양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공동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야3당은 먼저 여당을 향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같은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

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개헌 협상을 위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법개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별도 협의체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개헌협의체 구성에 대해 민주당 측은 수용의 뜻을 밝혔으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정국에 대해 협상에 나설 여건이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평화·정의당 공동교섭단체 이어 선거연대 할까

## 전략적 연대 필요한 지역 단일화 관측 제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교섭단체를 꾸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원내 활동에서는 호흡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두 당이 선거연대까지 공조를 확대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평화당은 호남에서는 정면대결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정의당 역시 당원의 뜻을 고려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전면적 선거 연대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동력이 부족하다는 관측이다.

12일 평화당과 정의당에 따르면 양당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보

임’ 지도부는 아직 선거연대와 관련한 공식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평화당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 “호남권에서는 민주당, 정의당과 저희 평화당 사이의 선거연대는 불필요하고,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1당 체제가 지속되는데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평화당의 입장인 만큼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과도 후보 단일화 등을 검토할 여지는 전혀 없다

는 뜻으로 읽힌다. 여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여전히 고전하고는 있지만, 인제영입 등을 통해 민주당과의 1대1 경쟁구도를 형성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들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전국적 범위에서 당과 당의 선거연대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의당의 이 같은 입장은 공동교섭단체 구성 과정에서 지역당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양당이 자력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힘든 지역이나 전략적 연대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후보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6·13 선거 현상

##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 박혜자 “문화도시광주 인적 인프라 복원”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지속 가능한 광주 발전의 원동력은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와 콘텐츠 확보에 있다”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플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문화예술 인적 인프라의 복원이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보수 정권 9년 동안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예술인들만 지원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은 척박해졌다”면서 “지역예술 환경이 척박해진 상황에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 송갑석 ‘보편적 복지 정책’ 공약 발표



송갑석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2일 ‘사람이 먼저, 보편적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약의 핵심 내용은 복지와 교육, 일자리, 다문화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그는 “무한경쟁과 각자도생,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한 사회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원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명진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필요”



김명진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늘어난 일자리는 2개월 연속 10~11만개 수준에 그친데 반해 3월 기준 실업률은 4.5%로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3월 실업자수는 125만7000명으로 석달 연속 100만명을 넘었는데 정부·여당은 뒷만 보고 있다”면서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염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광주시장 후보

### 윤민호,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제시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2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전면 무상교육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과과 급식, 등록금, 교과서 등 전체 무상교육은 883억원 정도”라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협정이 추진되면 국방비 13조4000억원의 예산을 축소하면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문재인 정부와 서울의 10년 혁명 완성”

### 박원순, 서울시장 3선 도전 공식 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며 서울시장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배포한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2011년 취임 후의 주요 시정 성과로 ▲전환경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등록금 ▲재무 8조원 감축과 사회복지 두 배 증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찾아가는 주민센터 ▲12만호 임대주택공급과 공공어린이집 30% 달성 ▲재개발·뉴타운 정리와 도시재생 등을 꼽았다.

이어 박 시장은 “이제 서울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6년 서울시정의 경험과 실력으로 시민의 삶의 질은 높이고, 촛불광장의 정신을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주요 공약으로 “2019년 100주년 전국체전을 서울-평양 공동개최로 추진하고, 평양과의 경제협력 및 문화예술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 광주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 토론회서도 찬반 의견 팽팽

광주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에 대한 시의 재의결 요구안이 의회에서 1차 보류된 가운데 12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종민 광주복지공감 공동대표와 김현영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이사가 조례 찬성측 토론자로, 손재홍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폐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사무총장과 김경아 간사장이 반대측 토론자로 각각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찬성측 토론자들은 “시 예산 중 1조3000억원 이상이 복지 관련 분야에 쓰여지고 있어 시민 요구에 따라 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측 토론자들은 “일반감사가 아닌 특별감사를 해마다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좌장을 맡은 이정현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토론자와 방청객들의 의견은 전체 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금명간 조례 재의결의 요구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연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